

<발 표 I-4>

무치 하악골에서의 치은 및 치조 융선표면에 관한 주사전자현미경적 연구

이용찬, 이승표, 백기석, 김명국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해부학 교실

무치하악골에서의 치조융선과 이를 덮고 있는 치은은 의치가 놓이는 곳으로써, 치아를 발거한 후 시간의 경과와 기능적 자극에 따라 구조가 상이하므로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해 여러 각도와 견지에서 흥미를 갖고 연구하여 왔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무치하악골에서의 치은상피표면과 치조융선골표면형태를 조사하기 위해 1970년 이후 학생실습용으로 수집한 시체중에서 16구 (유치악 8구, 무치악 8구)를 사용하였다. 유치하악골에서는 절치부순측치은상피, 구치부협측치은상피, 절치부순측치조돌기표면 및 구치부협측치조돌기표면형태를, 무치하악골에서는 절치부치조융선을 덮고 있는 치은상피, 구치부치조융선을 덮고 있는 치은상피, 절치부치조융선표면 및 구치부치조융선표면 형태를 각각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무치하악골치조융선을 덮고있는 절치부치은상피표면은 세포모양이 일정하지 않았고, 벌집모양의 미세융기가 일부 흐트러져 있었으며, 인접세포 사이의 간극과 탈락 세포가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무치하악골치조융선을 덮고있는 절치부치은상피표면은 유치하악골에 비해 세포의 윤곽이 불규칙하였고, 벌집모양의 미세융기가 일부 변형되었으며, 인접세포사이의 간극이 더 넓어졌다. 그리고, 탈락 세포도 더 많이 관찰되었다.

2. 무치하악골치조융선을 덮고있는 구치부치은상피표면은 거칠었고, 세포의 크기가 작았으며, 벌집모양의 미세융기가 흐트러지거나 엉켜있었다. 그리고 인접세포사이의 간극이 넓어졌고, 표면의 소와들이 깊었으며, 탈락되려는 세포가 많

이 관찰되었다. 그리하여, 무치하악골치조용선을 덮고있는 구치부치은상피표면은 유치하악골에 비해 세포의 모양이 작고, 불규칙하였고, 거칠었으며, 벌집모양의 미세용기가 더 흐트러지거나 엉켜있었다. 그리고, 안접세포사이의 간극이 더 넓고, 깊었으며, 탈락 세포도 더 많이 관찰되었다.

3. 무치하악골절치부의 치조용선골표면은 거칠었고, 치석모양의 구조물이 많이 있었으며, 길게 파인 모양의 균열과 함요도 관찰되었다. 그리하여, 무치하악골절치부의 치조용선골표면은 유치하악골에 비해 거칠었고, 치석모양의 구조물이 더 많았으며, 길게 파인 모양의 균열과 함요도 더 많이 발견되었다.

4. 무치하악골구치부의 치조용선표면은, 일부 예는 평탄하고, 작은 혈관공이 산재해 있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예는 골표면이 거칠고, 다공성이었으며, 흡수면, 골소강, 골지주 및 작은 혈관공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골소강의 입구 주변과 그 내벽은 흡수된 것도 있었고, 반면에 석회구가 축적된 것도 있었으며, 골지주표면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고, 작고, 큰 혈관공이 발견되었다.

5. 이상의 결과는, 무치하악골치조용선을 덮고있는 치은상피표면은 유치하악골의 치은상피표면에 비해 거칠었고, 세포의 크기가 작았으며, 벌집모양의 미세용기가 흐트러지거나 엉켜있었다. 그리고 인접 세포사이의 간극이 더 넓고, 깊었으며, 탈락 세포도 더 많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무치하악골의 치조용선표면은 유치하악골에 비해 거칠고, 다공성이었으며, 흡수면, 골소강, 골지주 및 작은 혈관공이 발견되었다.